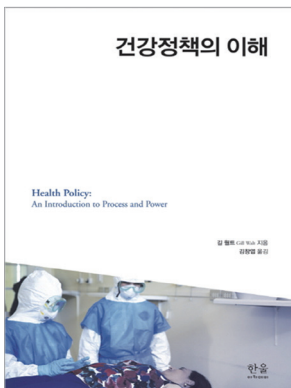


모두가 건강한 세상(Health for All)을 만들기 위한 지침서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저서: 건강정책의 이해
저자: 길 월트
역자: 김창엽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연도: 2016
쪽수: 352쪽

“건강정책의 이해”는 현재 영국 런던열대의학대학원 명예교수인 길 월트(Gil Walt)의 책 “Health policy: an introduction to process and power” (1994)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이 가지는 의의는 첫째, 건강정책의 수립, 시행, 분석, 평가를 ‘권력’과 ‘과정’으로 파악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이 책의 목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서론에서는 정책분석을 위한 개념의 틀을 제시하고, 정치로서의 건강정책(제2장), 권력과 정책과정(제3장), 정책의제설정(제4장)을 차례로 다룬다. 다음으로 건강정책 영역에서 중요 이해관계자인 정부(제5장)와 이익집단(제6장)을 다루는데, 그 범위를 국제수준까지(제7장) 확장시킨다. 이후 정책의 집행(제8장)과 평가 및 연구(제9장)로 이어진다. 저자는 마지막 장(제10장)에서 앞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자신의 색이 묻어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는다.

둘째, 건강정책을 논함에 있어 맥락, 내용, 과정이라는 이론(개념)의 틀을 명확히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나열적, 서술적, 기술(技術)적 접근으로 인해 생기를 잃고 화석화한 보건의료정책학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실천적 학문으로 재탄생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건강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또 건강정책 영역이 수많은 이해관계자 간 권력이 충돌하는 각축장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바람직한 건강정책의 시행이 전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달려있음을 설명한다.

이상의 특징에 더하여 이 책은 건강정책에 대한 일국적 관점을 벗어나 그 무대를 국제사회로 확장시킨다. 더욱이 저자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보건정책을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하기에 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적이다.

이 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지극히 입문적 수준에 그친다. 또한 20년 전의 글이라는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 건강정치학에서 ‘목표, 방식, 평가’ 등을 결정하는데 토대적 역할을 하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대해 충분한 분량을 할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역자가 지적했듯 누구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세계화, 민영화에 대한 입장도 다소 모호하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가 이 책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길 월트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할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꼭 읽어야 할 ‘건강정치학의 입문서’이다. 여기서 ‘건강정치학’이란 ‘모든 이들의 건강(health for all)’을 지향하는 실천적 학문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 책은 그러한 지향에 동의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선동’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저자의 생각은 이 책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보건인력, 학생, 연구자, 교

1) 이 책의 번역자는 ‘health policy’를 일반적인 번역어인 ‘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으로 번역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건강정책’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 노조활동가, 시민활동가, 또는 정책 담당자 그 누구라도 정책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환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좀 더 효과적으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잘 훈련되고 정치적으로 노련한 건강정책 활동가들’의 헌신이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이 주는 교훈이자 결론이다.